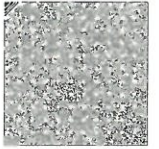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81호 2022년 2월 13일(다해)

연중 제6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31(30),3-4 참조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 예레 17,5-8

화답송 | 시편 1,1-2.3.4와 6(◎ 40(39),5ㄱㄴ)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제2독서 | 1코린 15,12.16-20

복음환호송 | 루카 6,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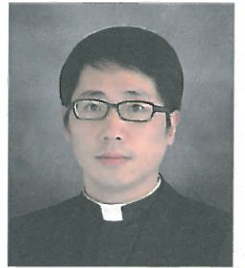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음 | 루카 6,17.20-26

영성체송 |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상대적 박탈감과 참 행복

운전 중 이쪽 차선의 차들은 꿈쩍도 안 하지만 반대 차선은 텅 비어 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쪽은 정체가 없지만, 맞은편 차들이 서 있을 때 묘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은 '상대적'이며 참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참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이번 주 성경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제1독서(예레 17,5-8)는 저주와 행복에 관한 상반된 예언을 들려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예레 17,5)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예레 17,7-8)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는 주님에게서 떠나 있기에 교만해지기 쉽지만,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이는 겸손 안에 머물기에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제2독서(1코린 15,12,16-20)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텅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1코린 15,17)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희망의 근거이기에, 이 믿음과 희망은 현세적 행복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1코린 15,19) 이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믿음과 희망과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영원을 지향합니다.

복음(루카 6,17,20-26)은 참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다른 이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만족감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사람에게 의지하여 주어지는 일시적 보상과 위로와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하느님을 신뢰하기에 고통의 현실까지 감내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에서 찾아야 합니다.

물론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며 현실에 무관심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되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나 만족만을 지향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과 희망으로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초대받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20)



완차코 해변, 페루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예레 17,7)

어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입니다. 고기잡이에 있어서 어부를 따를 자는 없습니다. 지난날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잣대로는 따르기 힘든 말씀임에도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지요. 예수님을 향한 무한신뢰입니다. 살면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서울가톨릭연극협회

2015년,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발족하면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도 짧고, 믿음도 부족한 저에게 선배님이 찾아오셔서 '자네가 회장을 좀 맡아야겠다.'라고 부탁하시는데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가톨릭연극협회 이전에도 가톨릭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모였었다는데,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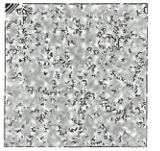
협회를 만들자니, 회칙도 만들어야 하고,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도 있어야겠고, 임원진들도 꾸려야 하고, 무엇보다 회원들이 모여야 하니 여기저기 연락해서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자고들 해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공연을 통해 봉사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톨릭 연극인들이 모여 첫 공연을 하는데 임치백 요셉 성인에 관한 작품이었습니다. 연출은 유환민 신부님이 맡아 주셨고, 공연장은 교구청 마당에 만든 무대로 삼아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별히 염수정 추기경님도 '체포되어 온 천주학생이' 중 한 명으로 찬조 출연을 해주셨지요.

그 공연을 앞두고 제작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회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한 후 제가 모델로 활동하던 '여명 808'의 남종현 회장님께 공연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리려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날 밤에 회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청하고 헤어졌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간절하게 했던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 사정을 다 아시니까,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최주봉 요셉
서울가톨릭연극협회장



꺼낼지, 어떻게 설득할지 절 이끌어 달라고 졸랐지요. 온갖 장황한 말로 한참을 기도했는데, 그때의 기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면담하며 후원을 부탁 드리는데, 제가 길게 말을 잇기도 전에 너무나 흔쾌하게,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톡 내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불교 신자라서, 제가 가톨릭 연극을 위해 후원을 청하는 것도 좀 면목이 없던 차에, 관대하게 베푸는 마음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원 한 사람도 저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참 절실했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간절함을 보시고 도와주셨나 봅니다.

그렇게 첫 공연으로 <요셉 임치백> 무대를 가졌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저희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벌써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던 활동이 많이 멈췄지만, 처음 계획대로 공연을 통해 봉사하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 연극인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끔 지향을 모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껏 묵상

가톨릭
하느님나라가
가난한 사람들과!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것이다

증가 6. 20



류상에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회개
죄
용서
신앙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6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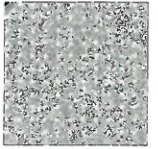
조한규 베네딕도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선 하느님께 지은 죄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에 따르면 죄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고 합니다.(385-390항 참조) 즉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 하느님을 외면하고 등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다음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 짓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느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처지를 하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짓는 죄 중 가장 큰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망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지옥이란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유다는 죄를 지은 후 절망을 했고, 스스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베드로 역시 배신의 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믿는 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마태 12,31-32; 마르 3,28-29; 루카 12,10 참조)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모든 죄에 포함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 바라시는 하느님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음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죄인이 진정 회개한다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자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단죄하거나, 저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단정한다면, 이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큰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범위는 모든 죄에 해당합니다. 하느님을 배신하고 하느님을 등진 사람까지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2)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용서 못 하실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입니다. 대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회개’(悔改)의 동의어는 ‘회두’(回頭), 즉 ‘고개를 돌리다.’, ‘하느님을 바라보다.’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신앙과 동일한 의미이고, 죄의 반대말입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로마 5,20)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의 단죄가 아니라 회개, 즉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선행, 극기, 봉사, 단식을 통해,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 영혼은 맑아지고, 그러면 하느님 말씀이 잘 들리고, 하느님 은총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결핍의 상처로 얼룩진 인생, 롯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인생의 여정을 항상 같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부터 그러했으며,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에도 롯이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삼촌 조카가 아닌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사이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롯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삶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이었던 시대였기에, 롯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롯을 가엽게 여기고 가능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며, 더 신경을 썼을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피를 나눈 친아버지와는 모든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 자칫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떠받들어주고 무조건 옳다고 봐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핍의 상태가 심해지면서 이기적이고 노골적으로 다른 이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심적으로 강한 피해 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 자신의 결핍 상태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보상심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도움을 주면 처음에는 고맙게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받는 것을 당연시하며 오히려 도움이 없을 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도 재산(양 떼와 소, 노비 등)이 많아져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자매간에도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관계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싸움은 재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의 싸움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분쟁

이 반복되면 동거보다는 분가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힘을 합해야만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과거의 가난했던 시절엔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가하기를 권하며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걸이 번지르르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걸이로 화려한 소돔은 실제로는 죄가 범람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욕심을 가지고 한 선택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돔 땅에서 전쟁과 약탈행위가 일어나면서 롯은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히는 굴욕을 맛봅니다. 그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재물도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돔 땅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는 자신의 재물과 땅이 못내 아쉬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가장 믿었던 재물과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삼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었던 재산이 사라지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믿음을 상실합니다. 롯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하느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1900~1944)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심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중요한 것을 잊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삶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창세 13~14장; 19장 참조)



토마조 알비노니 | 사진출처: 나무위키



나를 위로하는 속도, 아다지오(Adagio)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작곡가는 보통 자신의 작품에 이 곡을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연주해야 할지를 적어놓습니다. 이런 빠르기 지시어는 보통 이탈리아어로 약속되어 있는데, 천천히 걷는 속도를 말하는 ‘안단테(Andante)’, 중간 속도(보통 빠르기)라고 하는 ‘모데라토(moderato)’ 등이 그런 예지요.

‘아다지오(adagio)’ 역시 이런 지시어의 하나로, 음악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느리게. 안단테와 라르고 중간의 빠르기. 소나타나 교향곡, 협주곡의 제2악장이 흔히 ‘아다지오’로 되어있다.”라고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다지오’라는 지시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단순히 빠르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일종의 감정어입 같은 것이긴 하지만, 어떤 정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다지오의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그 곡의 선율의 아름다움을 보다 더 잘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위안을 얻고 힐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음반사는 아다지오 빠르기의 음악들만을 모아서 <아다지오(Adagio)>라는 타이틀로 음반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아다지오 음악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아마도 알비노니(Tomaso Giovanni Albinoni, 1671~1751, 이탈리아)의 ‘아다지오 g단조(사단조)’일 것입니다. 수많은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본인들에게 맞게 편곡해서 연주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이 곡의 정확한 곡명은 <현악기와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사단조)>인데, 우리에게겐 오랫동안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알비노니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악학자들은 이 곡이 실제로는 20세기 음악학자 지아조토(Remo Giazotto, 1910~1998, 이탈리아)가 쓴 곡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죠. 알

비노니의 작품 목록을 정리하고 전기를 쓴 지아조토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드레스덴의 작센 주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악보 조각을 입수했는데, 이 작품이 알비노니의 트리오 소나타(혹은 교회 소나타)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단일 악장의 곡을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현악기와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사단조), 토마조 알비노니에 의한 두 가지 주제 아이디어와 베이스에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알비노니 곡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고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지아조토가 발견했다는 그 악보 조각이 정말 알비노니의 작품인지, 지아조토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센 주립 도서관 소장품 목록에는 지아조토가 발견했다는 알비노니 악보 조각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아다지오 작품의 실 작곡자에 대한 논쟁이 있단들 그것이 우리 감상자들에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구슬픈 듯 우아한 선율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아다지오는 한없는 위로의 속도로 다가올 뿐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의 품에서 위안을 얻고 휴식 하라고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알비노니-지아조토
현악기와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사단조)





아다지오 성악 버전,
노래: 일 디보 (실황)

과학과 신앙은 함께 탄생한 쌍둥이다!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이 글을 쓰는 저는 가톨릭교회의 사제이면서 동시에 이론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부터 주변의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 가톨릭교회의 교리 내용과 현대 과학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과학과 신앙 간의 조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을 정확히 다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과학과 신앙 간에 조화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 둘 모두가 하느님을 섬기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면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밤 하늘을 바라보아도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2~30년 전까지만 해도 밤하늘을 바라보면 상당히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우주의 광활함에 크게 감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저 우주, 저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저 우주, 저 별들을 만든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종종 아름다운 바닷가를 거닐면서 넓고 푸른 바다의 모습에 압도되곤 합니다. 이 바다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거리를 던져줍니다. ‘도대체 저 바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저 바다를 만든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는 이러한 여러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지혜서의 한 구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지혜 13,5) 많은 신앙인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동시에 그 자연의 창조자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분께 찬미를 드리곤 했습니다. 바로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이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지를 물으면서, 동시에 웅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을 창조한 “그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지혜서의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생겨난 자연과학과 신앙은 사실 출발점이 동일합니다. 자연과학과 신앙은 둘 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만 질문이 좀 다를 뿐입니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저 웅대한 자연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 자연을 저런 식으로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근본적인 법칙이나 원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은 “저 웅대한 자연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자는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과학과 신앙은 그 태생적인 출발이 같은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둘 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엄마로부터 함께 탄생한 쌍둥이인 것입니다!**

김성태(요셉)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김성태(요셉) 신부님께서 지난 1월 31일(월)에 선종하셨습니다. 김성태 신부님은 1942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66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명동성당, 소신학교 교사, 신림동(현, 서원동)성당,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 교리신학원 원장, 당산동성당, (재)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으로 사목하시다가 2015년 원로사목자가 되셨

습니다. 2월 3일(목)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97년 2월 15일 이삼복 요한 신부(83세)
- 2002년 2월 17일 고명철 아우구스티노 신부(65세)
-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87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교구정보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2월28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장지혜 루치아, 허진영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향심기도와 관상기도 침묵피정

때: 3월11일~13일, 4월4일~7일, 4월14일~17일, 4월22일~24일, 5월2일~5일, 5월20일~22일, 6월7일~10일, 6월17일~19일
그 외 소그룹·단체 / 당일·숙박 피정 가능
회비: 2박 15만원, 3박 20만원 / 지도: 김귀웅 신부
곳: 용문청소녀수련장(추천) / 문의: 031)774-3587

제42회 가톨릭 에코포럼(은오포라인)

주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과 신앙인의 정치적 참여"
발제: 박동호 신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토론: 조경자 수녀(장상연합회 JPIC분과) 외
때: 2월23일(수) 19시~21시
곳: 가톨릭회관(명동) 1층 강당(사전 대면 참여 신청 필수, 선착순 60명) / 대면 참여 신청 주소: <https://bit.ly/42회가톨릭에코포럼>
유튜브 생중계: 링크(<https://bit.ly/2EZafbf>) 또는 '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검색
문의: 02)727-2283, 2272 환경사목위원회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2 전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2월14일(월)~3월1일(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3월7일~6월13일(매주) 월,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3월7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35세미만 청년), 직장인(일반신자) 성서못자리

때: 3월2일~6월8일(매주) 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권·동부 화요반 / 서부 목요반)
수강기간: 3월9일~6월16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3월7일~6월30일 / 회비: 10만원

수강방법: 에드워드ID와 비밀번호로 에드워드에 접속하여, 한 학기 20강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강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론연구소 제 17기 졸업전: 전관
전시일정: 2월16일(수)~21일(월)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을 위한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2월19일 10시30분
곳: 명동성당 옆 영성센터 경당(상설고해소 건물)
문의: 02)318-3079

명동성당 성서40주간 모집

때: 3월8일부터 매주(화) 10시~12시(40주간)
곳: 서울대교구청 본관 501호
강사: 가톨릭성서모임 수녀
회비: 8만원 / 문의: 010-5271-9700(문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방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06차 미사 2월1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 덕원자치수도원구 고산 본당, 원산 본당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문의: 02)727-2420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권성여 프란치스코'
때: 매달 셋째주(화) 2월15일 오전 10시(171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나눔 봉사자 교육

대상: 신입 예비 신자 교리 나눔 봉사자
때: 3월8일~5월31일(주 1회 90분, 총 12주)
방식: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자세한 내용은 공문참조)
회비: 6만원(2월22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5 사목국 교육지원팀

충만한 삶을 향한 '사랑의 기쁨' 수업

대상: 생명윤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때: 3월2일~4월20일(매주) 수 19시30분~21시(8주)
곳: 서울대교구청 501호
목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을 통해 신자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겪게 되는 사랑, 혼인, 가정, 고통, 죽음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고하며, 보다 충만한 삶을 위한 복음적 관점을 정립함 / 회비 없음(선착순 30명)
신청마감: 2월23일(수) 오후 5시까지
신청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사무국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계약직 1명)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능력(오피스·한글) 갖춘 사람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2월28일까지 이메일(ssvpk@hanmail.net) 및 팩스(02-756-0465) 접수

꾸르실료회관 직원 모집 / 문의: 02)337-8588

분야: 주방장, 미화, 시설관리 보조 각 1명(계약직)
대상: 세례받은 분, 자격증 소지자 및 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주임 신부님 추천서 / 우편 및 이메일(cursillo@catholic.or.kr) 접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원 모집

분야: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1명(1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 2월18일(금) 18시까지 접수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경력자
세부사항 필히 참조-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알림참여-채용공고 참조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직원 모집

육아휴직 대체 근무(3월~8월 / 6개월)
업무: 영상 촬영 및 편집, 디자인 등
대상: 세례받은 분, 전공 및 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마감: 2월18일까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 이메일 문의

요셉의원(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① 약사(자격증 소지자·반일근무), 관리자경력(구·매·재고관리) ② 사회복지사(1급/2급인 경우 사회복지사업 분야 경력자) ③ 재무팀장 법인 재무경력자(더존회계프로그램 사용자, 예산·결산업무) ④ 치위생사(자격증 소지자·반일근무) ⑤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인원: 각 분야별 1명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2월28일(월)까지 이메일(sdlee@josephclinic.org) 접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참조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0명(계약직, 후회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2월27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2월22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추직, 종로3가 창덕궁 앞)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히랍어)
 때: 4월부터 1년 과정 11시~13시
 (목) 신약 (금) 구약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특강
 주제: 가톨릭 사상사(교회의 대사회적 가르침-교황문헌을 중심으로) / 강사: 한홍순(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때, 곳: 3월11일~6월10일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총13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내 명례방(B1)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30%할인) /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사무실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김정고시 및 수능준비, 자기계발(메이크업·제과제빵·바리스타·영상·사진·필라테스·영어대화 등)
 자원봉사자: 대학생 이상 성인, 수학·과학 학습지도 가능하신 분 /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2022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수요 특강
 때: 3월2일~5월25일 매주(수) 13시30분~14시50분(12회)
 현장 강의·실시간(유튜브) 강좌·영상 녹화 강좌 중 선택
 회비: 10만원(현장 강의는 부분 수강 가능·과목당 1만원)
 주제·강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홈페이지(www.fec.or.kr) 참조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무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뇌발달연구검사 참여자 모집
 연구과제명: 청소년기 문제적 인터넷 사용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뇌영상 연구 / 대상: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및 성인(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내용: 뇌 구조 및 기능 MRI 촬영, 자기보고 설문검사(총 2시간30분 소요) / 실시기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독기술제어센터(연구책임자: 전지원 교수)
 참여방법: 전화상담 후 참여가능여부 안내
 신경인지검사결과제공 및 교통비를 포함한 사례비 지급
 문의: 010-7173-7589, 02)2258-7586

예수회센터 프로그램(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	매주(목) 14시~16시	이창현 신부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	매주(월) 10시~12시	김정욱 신부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매주(화) 14시~16시	서명원 신부
실시간 Zoom 강좌	영어성경 나눔 - Mark's Gospel Chapters 6-16 매주(목) 18시~19시 반, 19시30분~20시30분 반	Kister 신부
	영성과 철학상담-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 홍정자 교수

2022년 상장례 연도전문강사 양성교육과정
 대상: 본당 또는 관련단체에서 연도전문강사로 활동하실 분 / 회비: 각 학기당 26만원
 내용: 상장예식, 상장례성음악, 연도이론과 가장 교육기간: 1년 과정(1학기과 2학기로 진행)
 때, 곳: 매주(목) 19시~20시30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 /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010-3211-8941 연구간사(가톨릭 상장례음악연구소)

모집

방화3동성당 주일 교증미사 반주자 모집
 미사: (일) 오전 11시 / 서류: 교적 사본
 대상: 가톨릭신자이며 반주 유경험자(해당분야 전공자) 3월6일(일)까지 이메일(jys9059@naver.com) 및 우편(우 07518,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50길 16 방화3동성당) 접수 / 문의: 02)2661-2234

2022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견진 받은 16세 이상 교우
 지원서 교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308호
 2월28일까지 접수 / 문의: 02)779-3881(근무일: 토·일·월), 010-9600-6358 작은형제회, 02)793-2070 끈뎀두알, 010-7261-8233 카푸친, 010-4171-0898 청년회(만 35세 미만)

미사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2월14일(월) 10시, 가톨릭회관 2층(205-3호)
한국콜럼버스 기사단 월레미사
 때: 매일 셋째주(토) 2월19일 11시(미사·성시간)
 곳: 군중교구청 대성당 / 문의: 010-6244-0254

인간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전문심리상담: 갈등을 겪는 가족·부부·개인(우울·공황·강박·분노) 종합심리검사 / 문의: 010-5604-1882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가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자비외수녀회)

노인 공동생활가정
 시설명: 바오로 성모의 집(유료)
 대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여성
 곳: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
 운영기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문의: 02)381-7510, 010-2755-168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 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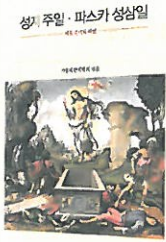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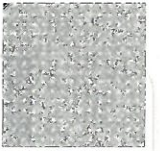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일: 강의 3월3일부터 매주(목) 10시~11시30분(14주), 그룹훈련 11시30분~13시
	금요일: 비대면 온라인 강의(Zoom) 3월4일부터 매주(금) 14주, 치유적 강의 및 훈련 10시~13시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유관단체 일림
한민족통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제: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2월22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수도회 성소모임	시간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월20일(일) 14시~16시	본원(미아리)	010-9816-0072
예수고난회	2월27일(일) 11시~16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월19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의방선교회	3월6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부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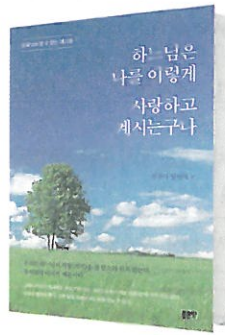


신간

성지 주일
· 파스카 성삼일

가톨릭전례학회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126쪽 | 1만원
문의: 02)740-9718

성지 주일과 파스카 성삼일 예식의 특성과 주제, 봉사자의 선정, 전례 동작과 표현, 성가의 준비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예절을 거행하는 사제와 부제, 준비하는 봉사자들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의 전례적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간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임인택 지음
좋은땅 | 172쪽 | 1만2천원
문의: 070-4866-5349

사랑은 사랑할 때에만 느낄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에 느낄 수 있다. 저자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하느님의 사랑(기적)을 체험한다.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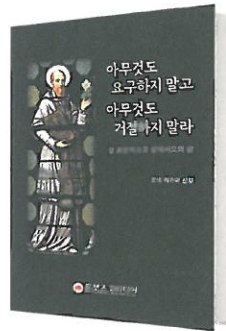


신간

순교자연구 6
성 도리 신부와
병인박해

윤민구 지음
기쁜소식 | 436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1865년 5월 조선에 선교사로 왔다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인물로만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을 용감히 실천하고자 했던 꿈을 지녔던 한 젊은이가 어떻게 그 꿈을 키우고 이루어 갔는지를 담았다. 도리 신부의 생애와 도리 신부가 순교한 병인박해와 그 배경에 대해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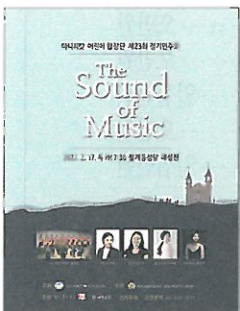


신간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라

르네 라가야 지음
돈보스코미디어 | 104쪽 | 1만원
문의: 02)828-3525

2022년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1567~1622)이 서거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살레시오회는 수호성인의 천상탄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분의 거룩한 발자취를 기록한 요약본 전기를 출간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왜 귀족의 삶을 버리고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되었는지 알려준다.



연주회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The Sound of Music

공연시간: 2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공연장소: 월계동 성당 대성전
문의: 02)338-7831 / 전석 무료

마니피캇 어린이합창단은 노래를 통한 사회봉사와 사랑의 실천, 가톨릭 복음 선포를 위하여 1994년 3월에 창단된 합창단으로, 매년 갖는 정기 연주, 해외 연주, 특별 연주와 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니피캇'(Magnificat)은 라틴어로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뜻이다.



cpbc FM

cpbc 라디오 드라마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특집
'바보 김수환'

방송시간: (월~토) 오후 4시 50분~5시
문의: 02)2270-2114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고 떠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2022년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가톨릭평화방송(cpbc FM)은 2019년 선종 10주년에 제작했던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을 다시 방송한다.

제2216(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창년 20, 창년 30) 	유 아 세 례	홍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시노드 주제 】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 ▶ ‘시노드’(Synod)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가리킵니다.
- ▶ 본당 시노드 계획
 - 본당 시노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전 신자에게 시노드관련 영상자료를 보여드립니다.
- ☞ 일시 : 2/19(토) 18시미사부터 매 주일 미사 강론 시간

◎ 성체조배 안내

곧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만큼이나 영적 목마름도 깊어지고 있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소 : 대성전
 시간 : 매 주 목요일 10시 미사 후

◎ 이철규 아우구스티노 보좌신부 피정

일시 : 2월 17일(목)~24일(목)
 ※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안내

오는 3월 2일(수)은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매 미사 중에 머리에 재를 엮는 예식이 있습니다(단식, 금육).

◎ 성지 회수

2월 27일(주일)까지 성전입구, 사무실입구에 있는 성지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3월 5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3월 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유아세례 : 3월 6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성당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2. 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86	566 (27.1%)	466 (22.3%)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책정한 세대는 2021년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1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11,932,4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김백합자 안나 상가 삼십만원

◎ 감사헌금 (1월 24일~2월 6일)

정수진 칠만원 익 명 삼십만원
 이명숙 이십만원 변정섭 일십만원
 신옥분 삼만원 권정자 일십만원
 권수희 오만원 장정은 일십만원
 안성은 일십만원 윤영자 이백만원
 명경애 일십만원 김옥녀 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강영자 오만원
 조유선 일십만원 이경자 일십만원
 최일곤 일십만원 김은순 오만원
 김재균 오만원 장순복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4주일)

교무금 16,907,000원
 주일헌금 4,872,000원
 해외원조주일 2차헌금 2,969,980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5주일)

교무금 12,889,000원
 주일헌금 4,392,0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918,400원